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 대 훈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동성애에 관한

고등학교 사회과교사의 인식조사

2010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박 선 진

동성애에 관한
고등학교 사회과교사의 인식조사

조 대 훈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박 선 진

인 준 서

박선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 현직교사가 성적소수자로서의 동성애에 가지는 태도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성적소수자에 관한 현장 교사의 인식과 태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소수자에 관한 편견의 감소와 인권 교육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교육과 다문화 교실수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과 교사가 동성애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주요 변인별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사회교과의 목표에 대한 관점에 따라 사회과 교사들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국·공립 학교의 사회과 교사 156명과 사립 학교의 사회과 교사 173명, 총 3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PASW 18.0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과 교사가 동성애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주요 변인별로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별, 연령, 학교 유형, 교직 경력, 동성애자 접촉 경험 유무에 따라 사회과 교사들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여교사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교직경력이 적을수록, 국·공립학교 일수록 동성애에 대하여 관용적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동성애자의 지인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동성애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2. 사회교과의 목표에 대한 관점에 따라 사회과 교사들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의 관점(시민성 전달모

형, 사회과학 모형, 반성적 탐구 모형, 사회비판 모형, 개인 발달 모형)중에서 사회비판모형을 선호하는 교사가 개인 발달 모형을 선호하는 교사보다 허용적이고 긍정적인 동성애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3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5
II. 선행연구 검토	8
1. 동성애 담론 및 동성애자의 차별과 불평등.....	8
2. 동성애 태도 연구	10
3. 동성애 및 동성애자의 태도 측정	12
III. 연구방법	16
1. 연구대상과 표집 방법.....	16
2. 연구변인	19
1) 독립변인	20
2) 종속변인	25

3. 연구모형	27
4.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28
IV. 주요 결과 분석	29
1. 동성애 태도 특정에 관한 요인분석	29
1) 개인적 태도 변인에 대한 요인분석	29
2) 교수적 태도 변인에 대한 요인분석	33
2. 동성애에 대한 사회교사의 태도	35
1) 변인별 사회과 교사의 동성애 태도의 특징 비교	36
2) 사회과의 목표에 대한 관점별 동성애 태도의 특징 비교	57
V. 결론 및 시사점	61
1. 분석 결과의 요약	61
2. 논의 및 시사점	62
1) 전통적인 가부장적 이성애주의의 해체	62
2) 동성애 접촉 프로그램의 기획과 구성	63
3) 다문화교육의 지평 확대	64
3. 제언	66

참고문헌	68
ABSTRACT	70
부 록	72

표목차

<표 III-1> 연구절차 및 과정	18
<표 III-2> 연구조사 대상자의 표집	19
<표 III-3> 연구내용의 영역 및 측정 변인	20
<표 IV-1> 개인적 태도와 KMO와 Bartlett의 검정	30
<표 IV-2> 개인적 태도의 요인분석 결과	31
<표 IV-3> 개인적 태도 척도의 영역 및 신뢰도	32
<표 IV-4> 교수적 태도의 KMO와 Bartlett의 검정	33
<표 IV-5> 교수적 태도의 요인분석 결과	34
<표 IV-6> 교수적 태도의 요인분석 결과	35
<표 IV-7> 성별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	37
<표 IV-8> 연령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	39
<표 IV-9> 학교유형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	44
<표 IV-10> 교직경력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	48
<표 IV-11> 동성애 접촉 경험 유무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	53
<표 IV-12> 사회교과의 목표에 대한 관점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 ...	59

그림 목차

<그림 III-1> 연구모형	27
<그림 IV-1> 연령에 따른 개인적 태도의 평균	41
<그림 IV-2> 연령에 따른 교수적 태도의 평균	41
<그림 IV-3> 학교 유형에 따른 개인적 태도 총점의 평균	46
<그림 IV-4> 학교 유형에 따른 교수적 태도 총점의 평균	46
<그림 IV-5> 동성애 관련 강의 경험 수강 빈도	52
<그림 IV-6> 동성애자 접촉 경험에 따른 개인적 태도 총점의 평균	55
<그림 IV-7> 동성애자 접촉 경험에 따른 교수적 태도 총점의 평균	56
<그림 IV-8> 동성애자 지인의 여부	56
<그림 IV-9> 가장 선호하는 교과적 관점의 빈도	58

I. 서론

1. 문제제기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사회과 교사들이 성적소수자로서의 동성애에 가지는 태도를 탐색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동성애의 개념에 대해 가지는 개인적 태도 및 교수적인 태도를 살펴보고 이 결과가 학교 시민교육과 교사교육에 대해 가지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오랜 역사 속에서 동성애자들은 그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이러한 침묵과 은폐의 역사는 ‘다양성’과 ‘인권’의 개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존중되는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동성애자들은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동성애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을 경우, 사회에서 받게 될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사회적으로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들은 극히 드물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성적소수자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인식 수준에 머무를 뿐이다. 1) 그리고 그 차별과 억압의 기저에는 이성애 중심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이 같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이성애중심주의 이데올로기가 재생산되는 주

1) <한국 레즈비언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30대 레즈비언 5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3%가 “레즈비언 정체성을 이유로 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된 장소 중 하나는 바로 학교라고 할 수 있다.²⁾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작업은 학교 교육, 특히 ‘바람직한 시민성 형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회과교육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학습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사회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문제는 사회과 교실 수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교육과정 활동을 구성한다.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문화적 행위, 제도, 유산 등을 비판적 성찰의 소재로 삼아서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세계를 추구한다(조용환, 2007). 이와 같이 다문화교육은 소수자에 대한 이해는 물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들과 다 같이 잘사는 길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와 관련된 교사들의 생각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것이 아쉽다. 다만 청소년과 관련된 동성애 국내 연구가 몇 편 있을 뿐이다(박수진, 2004; 강병철, 2005).

사회과 교사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교사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거나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할 때 가장 강력한 검열기관을 행사하는 교육기관이다. 그리고 교사는 교실수업 안에서 형성되는 공식적·잠재적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박윤경, 2004; 조대훈, 2006; Johnson, 1994;

2) 학교 학생들이 편견을 갖고 있다는 증거는 아래와 같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청소년들은 동성애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34.7%)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고,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징그럽다, 변태 등)이 72.5%로 긍정적인 느낌(21.3%)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피한다’(11.8%), ‘따돌린다’(2.3%)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 다수의 이성애자 청소년들이 청소년동성애자에 대해 갖는 인식이 냉랭함을 알 수 있다.

Thornton, 1991). 이 과정에서 사회 교사는 학생들이 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시민성 함양을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작용한다.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현재의 시점에서 교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교육을 실천하는 연구가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성적소수자의 개념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영 교육과정(null curriculum)’의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조대훈, 2006). 이런 상황에서 성적소수자와 관련된 사회과 교사들의 인식과 교실수업 상황에 대한 정보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학교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할 수 있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 현직교사가 성적소수자, 특히 동성애 성정체성과 동성애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관한 탐색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성적소수자에 관한 현장 교사의 인식과 태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소수자에 관한 편견의 감소와 인권 교육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교육과 다문화 교실수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 교사가 동성애에 가지는 태도를 크게 개인적 태도와 교수적 태도로 구분하여 접근할 것이다. 개인적 태도란 동성애 및 동성애자 개념에 대하여 일반인이 가지는 고정관념, 오개념 또는 불안감의 총체를

의미한다(Kite & Deaux, 1986). 한편, 교수적 태도란 교사가 학교교육과 교실 수업의 문제와 연관지어 동성애의 개념을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한다. 교수적 태도는 학교 교육과 교실 수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과 교사가 갖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도구를 제작하고 자료 수집에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과 교사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개인적 차원과 교수적 차원에서 어떠한 모습을 나타나는지를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회과 교사가 동성애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주요 변인별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1-1) 성별에 따라 교사들의 동성애에 대한 개인적·교수적 태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1-2) 연령에 따라 교사들의 동성애에 대한 개인적·교수적 태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1-3) 종교에 따라 교사들의 동성애에 대한 개인적·교수적 태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1-4) 학교 소재지에 따라 교사들의 동성애에 대한 개인적·교수적 태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1-5) 학교의 유형에 따라 교사들의 동성애에 대한 개인적·교수적 태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1-6) 학교 규모에 따라 교사들의 동성애에 대한 개인적·교수적 태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1-7) 교직 경력에 따라 교사들의 동성애에 대한 개인적·교수적 태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1-8) 교과 전공 배경에 따라 교사들의 동성애에 대한 개인적·교수적 태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1-9) 동성애를 주제로 한 강의 수강 빈도에 따라 교사들의 동성애에 대한 개인적·교수적 태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1-10) 동성애자 접촉 경험 유무에 따라 교사들의 동성애에 대한 개인적·교수적 태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로, 사회교과의 목표에 대한 관점에 따라 사회과 교사가 동성애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사회과 교사들이 인식하는 동성애 개념은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성적 소수자의 존재와 인권 문제를 기존의 시민교육적 차원의 포괄적인 인권교육의 틀 안에 위치시켜 교사들이 갖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성적 소수자의 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교실 수업 안에서 교사들이 동성애에 갖는 인식 및 태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동성애에 대해 갖는 교사의 태도를 개인적 차원과 교수적 차원으로

구분함으로써 이들 상호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즉 동성애에 대한 교사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과 도덕적 판단은 자기검열 과정을 거친 교실 수업 안에서의 태도와 별개일 수 있다.

셋째, 아직 국내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표준화 검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교사들의 동성애에 대한 개인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Kite와 Deaux(1986)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동성애에 대한 교수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가 교수적 태도 측정 도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와 게이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지 못했다. 즉, 후속 연구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로 구분함으로써 더욱 더 타당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인들(예: 종교 성향, 성역할 태도, 권위주의 등)을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으로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셋째, 아직 국내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표준화 검사가 없기 때문에 외국의 동성애 태도 측정기구를 활용하여 본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앞으로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의 설문지는 이성애자 교사들의 태도 측정 도구이므로 극소수의 동성애자 교사들은 그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하지만 동성애 교사

의 경우, 학교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동성애 혐오증으로 인해 자신의 성적체성을 설문조사 과정에서 솔직하게 드러내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이들을 가려낼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II. 선행연구 검토

1. 동성애의 담론과 사회과 교육

동성애는 인류역사 속에서 도덕적 비난과 강력한 법적 처벌의 대상이었으며 그것이 이성애(heterosexuality)와 대비되는 동성애(homosexuality)라는 하나

의 사회적 범주로 구성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이다(함인희, 2003).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가 공공의 담론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단체들이 생겨나면서부터이다. 그 후 지금까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한 활동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은 여전히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왜 동성애자가 되는가에 관한 동성애의 원인을 찾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동성애 원인론에 관한 최근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동성애를 ‘성적 지향장애’로 보면서 정신과적 장애로 치부하던 종래의 관념이 지양되고, 동성애자가 되는 것이 어떤 개인의 선택이 아닌 선천적인 것으로 보는 이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근래에는 동성애의 원인 규명에 관한 연구보다는 현존하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자의 성정체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는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한 동성애자의 성정체성 형성과정을 담은 박임효(2008)의 연구가 가장 선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동성애자의 성정체성 형성 과정은 ‘타인’의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문화적 과정과 ‘나’의 시각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교육적 과정이 중첩되어 연결되어 동성애자의 성정체성을 형성한다.

최근에는 동성애를 소재로 다룬 동성애 콘텐츠가 대중매체에서 꽤 빈번히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네 문화 전반에서 공공연히 동성애라는 단어를 드러내고 있다. 그만큼 사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관대해졌다는 이야기일까. 우리가 바라보는 동성애에 대한 시선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지만 성 소수자로서의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동성애자들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2005)는 국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에 관하여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동성애 담론의 특성은 시민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학교 교육, 특히 사회과 교육의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동성애자 차별과 관련한 논의는 학교교육과 동성애자에 대한 논의의 확장과 함께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사회과 교육 연구 문헌에서 동성애 관련 연구는 거의 전문한 실정이다. 여기에 조대훈(2006)의 연구는 성적소수자라는 주제가 공식적 교육과정과 함께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상당히 노골적인 조롱과 폭력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 문화는 동성애적 성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소수의 학생들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고 밝힌다.

예컨대,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성정체성과 성적 소수자의 존재는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변인들(예: 인종,종교,계급,젠더)이 사회 교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특히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대한 높아진 교육적 관심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문서와 사회과 검인정 교과서의 차원에서 전형적인 영 교육과정(null curriculum)의 사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성적 소수자들은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관찰되는 학생들의 또래 문화나 사회과 교실 수업에서 가벼운 농담의 소재에서부터 집단적 따돌림이나 폭력의 대상으로 활용되곤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은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 사회는 동성애에 대한 성희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이를 방관하거나 심지어는 즐기고 있는 듯한 모습까지도 보인다(조대훈, 2006: 223-225에서 재인용).

특히 이 연구는 성적소수자의 개념이 학교 문제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될 때

단순히 교육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문화적 문제로 탈바꿈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2. 동성애 태도 연구

성적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적체성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경험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립감을 느끼거나 위축되고, 자기혐오, 분노, 의심이라는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며(Garnets, Herek, & Levy, 1992), 심한 경우 자살로까지 이어지게 된다(강병철, 2005). 동성애자들이 이런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어 그들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부적응에 악영향을 받는다면 이런 혐오와 차별의 정도를 조사하고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행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요인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학(2004)은 사회적 소수자의 하위 영역으로서의 동성애자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연구하고 있는데, 특히 동성애자에 대해 가지는 사회적 거리감이 더 높았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감을 사용하여 부정적 고정관념과 감정을 다루고 있다. 서영석·이정림·차주환(2006)의 연구는 대학생의 동성애혐오를 연구하고 있는데, 특히 성역할태도, 종교성향, 권위주의 및 문화적 가치의 변수들이 동성애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남자의 경우 종교성향과 성역할태도가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 반면, 여자의 경우 권위주의·종교성향·성역할태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성애자와의 접촉여부에 따라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박수진(2004)은 청소년의 팬픽문화와 동성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간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는데 팬픽 접촉 수준, 즉 팬픽 접촉 경험의 유무와 팬픽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동성애에 대해 허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내렸다. 이 밖에도 동성친구간 애정 표현 경험의 유무, 스스로 동성애자인지 고민한 경험의 유무, 그리고 동성애자 사이트에 가입한 경험의 유무 변수가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변인이라고 보았다. 정재홍 외 5인(2003)은 동성애의 개념을 동성애에 대한 고민, 동성애적 행동, 동성애에 대한 생각, 동성애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동성애에 대한 생각 및 현황을 조사했다. 청소년들은 동성애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34.7%)라고 느끼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부정적인 느낌(징그럽다, 변태다 등)이 72%로 수용적인 느낌(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의 21.3%보다 높았다. 또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경우가 보다 더 수용적이었다.

지금까지 동성애 태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요인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남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연한이 적을수록, 특정 지역에 살수록, 종교적 신념이 강할수록, 정치적으로 보수적일수록, 권위주의적일수록, 전통적인 성역할을 고수할수록, 동성애를 생물학적 원인보다는 선택과 학습의 문제로 보는 경우, 동성애자들과 개인적인 접촉경험이 적을수록 동성애자들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3. 동성애 및 동성애자의 태도 측정

동성애와 관련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에는 5개의 연구가 있었다(Kite, Deaux, 1986; Larsen, Reed, Hoffman, 1980; Herek, Glunt, 1993; Larsen, Cate, Reed, 1983; Massey, 2009). 이들의 연구는 동성애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다차원의 측정 요소를 두고 리커트 척도에 의한 점수 합계에 의해서 동성애자의 태도를 구분한다는 데에는 공통점을 갖는다.

Larsen, Reed와 Hoffman(1980)의 동성애자에 대한 이성애자의 태도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이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동성애에 대하여 배타적인 태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 따르면,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는 권위주의, 종교적 독실함, 동료에 대한 태도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또한 배경 변인으로는 성별, 학과 전공별, 교회 참석율에 따라 동성애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로는 여성일수록 남성보다 동성애에 대하여 보다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이 연구는 사람들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재하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갖는 동성애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간략적으로 점검하고, 또 여기에는 몇 가지의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함으로써 후속 연구들이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주는가를 밝히는데 주력케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Kite와 Deaux(1986)의 동성애 태도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고정관념, 오개념, 동성애에 대한 염려를 측정한다. 문항은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와 동일한 사회적, 종교적, 법적 권리를 가지는 문제(직업선택권,

종교선택권, 행복추구권 등)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묻는다. 대부분의 측정도구들이 여러 변수와 동성애 태도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고 있는 반면, 이 연구는 문항의 합계 점수를 통하여 동성애 태도가 호의적인가 불호의적인가의 1차원의 단일 요소를 측정한다. 이 연구는 문항의 내적 일치성과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지만, 동성애 태도를 측정함에 있어 레즈비언과 게이의 구분이 없다는 데에 한계를 지닌다.

Herek, Eric(1993)은 게이에 대한 이성애자들의 태도를 측정했다. 그리고 이 연구는 미국 내에서 93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AIDS 전화 조사로부터 얻은 표본을 통해 게이 또는 레즈비언을 친구 또는 친척으로 뒀으로써 동성애자들

과 상호접촉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동성애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이 연구는 미국에서 20년 동안 동성애 태도와 성별, 교육수준, 연령,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참여의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던 데에서 나아가 동성애자와의 접촉경험이란 유효한 변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동성애 개념 자체를 단일 개념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동성애자와 여성 동성애자로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Larsen, Cate, Reed(1983)의 동성애에 대한 이성애자들의 태도 척도는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흑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보수적인 종교적 태도, 인간의 성(sexuality)과 관련한 강좌의 수강여부, 성적 관대함의 세가지 변수에 따른 동성애 태도를 조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앞서 그들은 흑인에 대하여 긍정적일수록, 성적으로 관대할수록 동성애 태도가 호의적이며, 보수적인 종교적 태도를 지닐수록 부정적인 동성애 태도를 지닐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대학에서 수강한 인간의 성에 대한 강좌로부터의 정보가 동성애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인간의 성 관련 강좌를 듣는 194명의 학생과 심리학 입문 과정을 이수하는 12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성애에 대한 의식 및 태도를 조사한 결과, 연구가설대로 흑인에 대하여 부정적이며 종교적 의식이 보수적일수록 동성애 태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성적 관대함은 동성애 태도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 관련 수업을 들은 실험집단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동성애 태도가 크게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이 연구는 흑인에 대한 태도와 동성애 태도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Massey(2009)의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한 이성애자들의 태도 척도는 단일 요소가 아닌 다차원의 7가지 요소들(전통적 이성애주의, 게이 차별을 배척하는 경향, 게이 혐오, 레즈비언 혐오, 게이와 레즈비언 운동의 가치에 대한 판단, 사회의 이성애주의적 기대에 대한 반감, 게이들에 대한 긍정적 신념의 지지)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성편견이 발전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와 같이 1980년대를 전후로 발전한 동성애 및 동성애자의 태도 측정 연구들은 단일변수가 아닌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동성애 태도와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동성애자의 개념이 교육의 문제와 연결될 때에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둘째,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연구들은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태도를 일반되게 보고하고 있다. 또한 동성애 태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성애 개념 자체를 단일 개념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동성애자와 여성 동성애자로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여러 차례의 연구를 통해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고 다른 도구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 Kite와 Deaux(1986)의 동성애 태도 척도(Homosexuality Attitudes Scale)³⁾를 사용하고자 한다.

3) 본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각 항목은 완전히 동의한다(1점)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5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척도는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와 동일한 사회적, 종교적, 법적 권리를 가지는 문제(직업선택권, 종교선택권, 행복추구권 등)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Ⅲ. 연구 방법

동성애자의 인권 교육이 학교교육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과 교수방법상의 노력뿐만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교사교육의 차원에서 예비-현직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들 프로그램의 제작과 실행에 선행하여 본 연구는 먼저 현직교사가 동성애자의 개념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실천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위해 설문지법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사회과 교사가 동성애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와 주요 변인 (예: 성별, 종교, 연령, 학교 규모, 학교 소재지, 성정체성, 교직경력, 전공 배경, 동성애 관련 프로그램의 수강여부, 동성애자 접촉 경험 유무)간의 상호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연구 대상과 표집 방법

연구대상은 역사, 지리, 일반사회를 포함하는 각 시도별 일반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이다. 설문대상 교사수는 약 520명 내외이며, 유효표본 수는 400명 내외를 목표로 했다.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총 5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동성애 태도 척도의 신뢰도는 .957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시도별 일반고등학교 교원 수’ 자료를 구하여 ‘400명당 각 시도별 일반고등학교 교원수’를 계산하고 이 수치에 따라 학교 수를 할당하는 층화표집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할당은 본 자료에 기초하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16개 지역을 따랐다. 설문대상 고등학교의 배정은 각 시도 교육청의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번호를 매긴 뒤, 무선헌당 웹 사이트⁴⁾를 활용하여 학교 명단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나서 선정된 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과 주임 교사 또는 교감 선생님과 전화연락을 취하여 연구 목적을 간략히 설명하고 설문 작성 협조를 구하였다. 그리고 각 학교의 사회교사 수를 알아본 뒤 교사 수에 근거한 설문지를 소정의 기념품과 함께 발송했다. 이후에 이메일을 통해 다시 한 번 연구방법을 소개하며 연구 참여를 독려했다. 설문지는 2010년 4월 20일에 일괄적으로 발송했으며, 반송봉투를 활용하여 약 2주 후에 수합하는 것으로 하였다.

4) 웹 주소 <http://www.randomizer.org/form.htm>

<표Ⅲ-1> 연구 절차 및 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9년									연구 주제 정하기, 연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 검토하기, 연구 방향 및 연구문제 설정하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설정 및 연구 모형 세우기, 세부적인 연구 계획 세우기			
2010년	동성애 관련 외국 연구 검토 하기, 개인적태도 측정도구 선정 및 번역하기, 교수적태도 측정도구 개발하기 , 설문지 문항 만들기, 예비조사 및 설문지 문항 다듬기, 외부 전문가에게 설문지 문항 의뢰 및 조언 구하기			설문대상 지역·고등 학교·교사 수 배정 및 학교명단 작성하기, 설문 작성 협조 구하기, 설문지 발송 및 수합하기		수집자료 검토, 데이터코딩 및 분석, 해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탐색, 글쓰기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 집단은 총 329명으로 국·공립 학교의 사회과 교사 156명(47.3%)과 사립 학교의 사회과 교사 173(52.7%)명이었다. 학교 소재지별 조사대상자의 수 및 비율은 다음 <표 Ⅲ-2>과 같다.

<표 III-2> 연구조사 대상자의 표집

학교 별	학교 소재지별															합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세 주
국·공 립	5개교 (53부)	-	-	1개교 (10부)	-	2개교 (21부)	1개교 (4부)	5개교 (10부)	3개교 (12부)	2개교 (17부)	2개교 (5부)	1개교 (8부)	2개교 (7부)	2개교 (4부)	-	1개교 (5부)	47.3% (156부)
사 립	5개교 (40부)	3개교 (24부)	2개교 (14부)	-	2개교 (13부)	-	1개교 (10부)	2개교 (24부)	-	-	3개교 (17부)	1개교 (4부)	-	1개교 (6부)	3개교 (21부)	-	52.7% (173부)
합 계	93	24	14	10	13	21	14	34	12	17	22	12	7	10	21	5	329

위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자는 국·공립 고등학교 사회과교사가 전체 520명 중에서 324명으로 62.3%, 사립 고등학교의 사회과교사가 196명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하며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2. 연구변인

본 연구는 동성애에 관한 사회과 교사의 인식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활용한다. 설문 문항은 교사 개인적 차원에서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교수적 차원에서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작성되었다.

1) 독립변인

사회과 교사가 동성애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주요 변인별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국내외 자료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언급된 변인들을 선정하여 문항에 포함시켰다.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측정영역 및 변인은 <표 III-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3> 연구내용의 영역 및 측정 변인

변수의 범주	변수	변수값
1.인구사회학적요인	성 별	① 여성 ② 남성
	성정체성	① 이성애자 ② 동성애자 ③ 트랜스젠더(성전환자) ④ 양성애자
	종 교	① 불교 ② 개신교 ③ 천주교 ④ 기타 종교 ⑤ 무교
	연 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소속학교 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2. 학교 환경요인	학교계열	① 국·공립학교 ② 사립학교
	학교규모	① 소 (12학급 이하) ② 중 (13~35학급) ③ 대 (36학급 이상)
3. 교사배경요인	교직경력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10년 미만 ③ 10년 이상~15년 미만 ④ 15년 이상~20년 미만 ⑤ 20년 이상~25년 미만 ⑥ 25년 이상~30년 미만 ⑦ 30년 이상

	전공배경	① 사범대학 지리교육 전공 졸업자 ② 사범대학 역사교육 전공 졸업자 ③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 전공 졸업자 ④ 사범대학 타 학과(예: 국어교육, 윤리교육) 전공자이면서 사회과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한 졸업자 ⑤ 일반대학 교직이수자이면서 사회과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한 졸업자 ⑥ 기타 (교육대학원 졸업자, 부전공 연수 등을 통한 교원자격증 취득)
	교과적 관점	① 시민성전달모형 ② 사회과학모형 ③ 반성적탐구모형 ④ 사회비판모형 ⑤ 개인발달모형
4.동성애개념 접촉 요인	동성애를 다루는 대학 수업이나 특강(또는 직무연수)을 수강한 적이 있다	① 예, 한 명 있습니다. ② 예, 두 명 있습니다. ③ 예, 세 명 이상 있습니다. ④ 아니오, 전혀 없습니다.
	동성애자 접촉 경험 유무	① 예, 한 명 있습니다 ② 예, 두 명 있습니다 ③ 예, 세 명 이상 있습니다 ④ 아니오, 전혀 없습니다

① 인구사회학적 요인

조사 대상자들의 기본적인 배경변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성별, 성정체성, 종교, 연령, 소속학교 지역에 대해 질문하였다.

성별에 대해서는 남성, 여성으로 분류하였으며, 종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 종교, 무교로 분류하였다. 성정체성은 본 연구의 대상을 이성애자로 제한하기 위해 질문한 것으로 자신의 성정체성이 이성애자인지, 동성애자·트랜스젠더·양성애자인지 구분하도록 하였다.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소속학교 지역은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시도별 일반고등학교 교원 수(2009)’ 자료를 참고로 하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분류하였다. 지금까지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된 변인들(성별, 연령, 종교) 뿐만 아니라 한국의 특수한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소속학교 지역 변인을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채택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② 학교환경 요인

사회과 교사들의 학교환경요인에 대해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 계열과 학교 규모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학교 계열에 대해서는 국·공립학교인지, 사립학교인지 구분하도록 하였다. 학교 규모는 ‘2009 교육통계분석자료집’을 참고로 하여 12학급 이하인 학교는 소, 13-35학급은 중, 36학급 이상인 학교는 대로 분류하였다.

③ 교사배경 요인

사회과 교사들의 교사배경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독립 변수로 교직경력, 전공배경, 교과적 관점을 설정하였다.

교직경력에 대해서는 5년 미만에서 30년 이상까지, 5년 단위로 나누어 7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전공배경은 사범대학 지리교육 전공 졸업자, 사범대학 역사교육 전공 졸업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 전공 졸업자, 일반대학 교직이수자, 기타로 분류하였다. 교과적 관점은 사회과 교과 성격을 구분하는 5개 범주들, 즉 시민성전달·사회과학·반성적탐구·사회비판·개인발달모형으로 분류하고, 그 중 가장 선호하는 교과적 관점을 표시하도록 질문하였다. 교과적 관점은 박형준(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를 그의 허락 하에 연구자가 일부 수정하여 사용했다.⁵⁾ 그는 그의 연구에서 Barr, Barth와 Shermis(1977; Barth and Shermis, 1970), Martorella(1996), Nelson과 Michaelis(1980)의 저작으로부터 질문지 내용을 구성한 Vinson(1998)의 질문지를 서면 허락 하에 번역하여 사용했다고 밝혔다.

④ 동성애개념 접촉 요인

사회과 교사들의 동성애개념 접촉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독립 변수로 동성애를 주제로 한 강의의 수강 경험 여부, 동성애자 접촉 경험 유무를 설정하였다.

동성애를 주제로 한 강의의 수강 경험에 대해서는 과거 대학(또는 대학원) 전공/교양 수업이나 교사 연수(또는 직무연수)등을 통해 동성애를 주제로 한

5) 사회과 목표에 관한 다섯 가지의 관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시민성전달모형- 고등학교 사회 교과의 핵심 목표는 모든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주류 역사, 문화, 가치에 기반한 공통적인 지식 체계를 교과서 읽기, 강의법, 그리고 객관적 시험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것이다. 사회과학모형- 고등학교 사회 교과의 핵심 목표는 개별 인문사회과학 영역 안에서 다루고 있는 특정 유형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해당 학문 분야의 주요 개념과 연구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반성적탐구모형-고등학교 사회 교과의 핵심 목표는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길러 주는데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생활 속 경험과 관련된다고 보는 개인적·사회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비판모형- 고등학교 사회 교과의 핵심 목표는 권력 관계와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부정의의 측면에서 과거와 현재의 우리 사회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개인발달모형-고등학교 사회 교과의 핵심 목표는 개인의 자긍심, 자존감, 자신감을 개별 학생들에게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가란 질문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한 번도 없다, 1-2회 있다, 3-4회 있다, 5회 이상 있다로 구분하여 해당 범주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동성애자 접촉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과거나 현재에 평소 잘 알고 있는 지인(가족, 친척, 친구, 동료) 중에 동성애자가 있는가란 질문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한 명 있다, 두 명 있다, 세 명 있다, 전혀 없도록 구분하여 해당 범주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된 변인들(동성애를 주제로 한 강의의 수강 경험 여부, 동성애자 접촉 경험 유무)을 동성애개념 접촉 요인으로 채택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2) 종속 변인

가. 동성애에 대한 개인적 태도

교사 개인적 차원에서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태도에 대한 것은 Kite와 Deaux(1986)의 동성애 태도 척도(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Assessment and behavior consequence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우선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동성애 태도 척도를 개발한 Kite교수와 이메일로 접촉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도구의 사용허락을 얻어내었다.⁶⁾ Kite와

6) 이 척도는 모두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분석 결과 크게 두 요인으로 나뉘어졌다. 두 요인의

Deaux의 측정도구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범위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적 차원에서의 동성애 태도가 호의적인 것으로 해석되며,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화하였다. 범위는 21-105점으로 분포한다. 본 연구에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동성애 태도 척도의 신뢰도는 .957로, 예비조사의 신뢰도 .938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나. 동성애에 대한 교수적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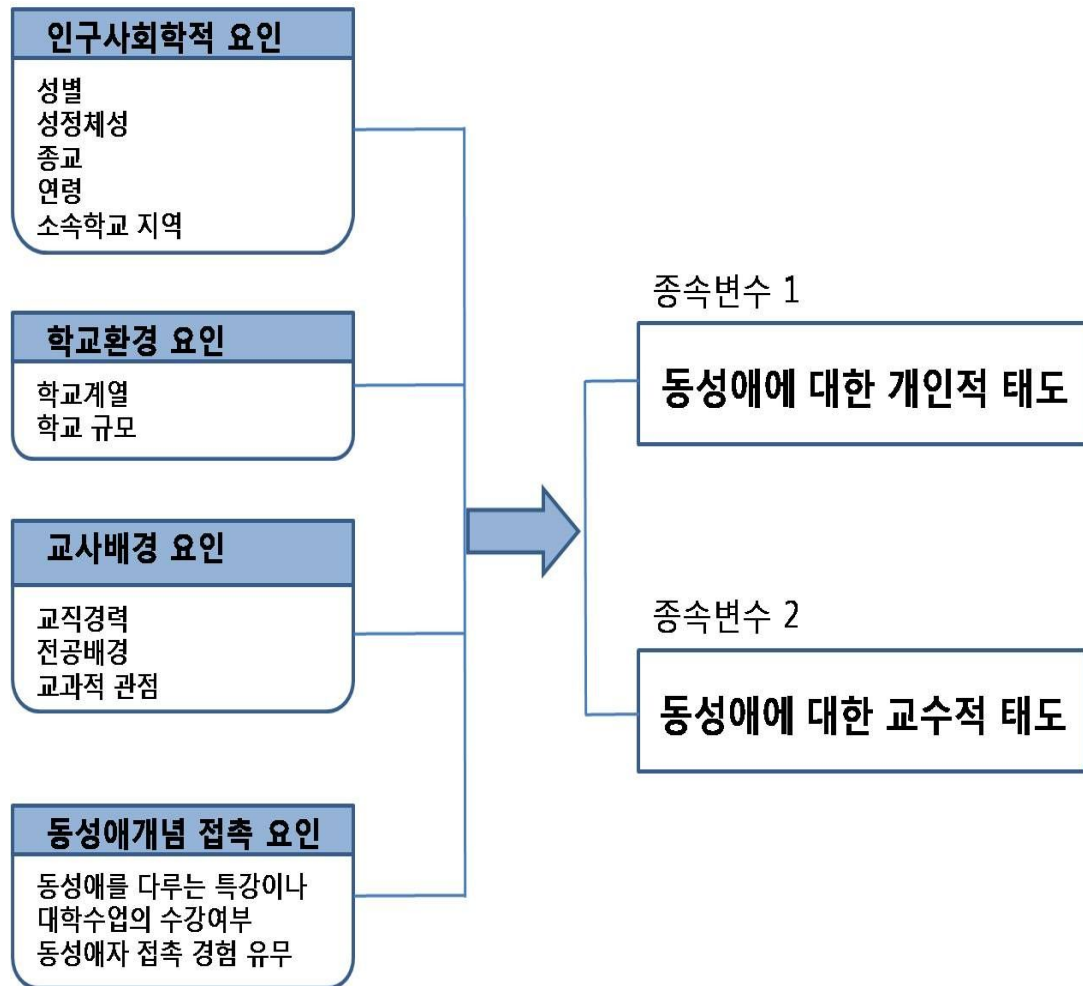
교사 교수적 차원에서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태도에 대한 것은 교사가 학생에게 동성애의 주제를 교수할 목적으로 학교교육과 교실수업의 차원에서 다룰 때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동성애의 개념 및 수업의 전개 방법 등에 대해서 본 연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설문지 문항을 직접 구성하였다. 이 척도⁷⁾는 모두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범위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교수적 차원에서의 동성애 태도가 호의적인 것으로 해석되며,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화하였다. 범위는 15-75점으로 분포한다. 본 연구에서 교수적 차원에서의 동성애 태도 척도의 신뢰도는 .877로 예비조사의 신뢰도 .846를 약간 상회했다.

문항들을 살펴본 결과, 동성애와 관련된 참고 문헌을 활용해 각 하위요인의 이름을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전통적 이성애주의'로 이름붙일 수 있었다.

7) 요인분석 결과, 개인적 태도의 하위요인과 같이 크게 두 요인으로 나뉘어졌다. 따라서 교수적 태도의 두 하위요인도 두 요인의 문항들을 살펴보고 동성애와 관련된 참고 문헌을 활용하여 각 하위요인의 이름을 '교육일탈로서의 동성애 이해'와 '동성애 교육의 지지'로 명명하였다.

3. 연구모형

<그림 III-1> 연구모형



4.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3월 중순에 예비조사를 해서 설문지 문항을 다듬었다. 그리고 타당도 측면에서 외부 전문가 두 분에게 설문지 문항에 대해 의뢰를 하고 조언을 구했다.

둘째, 사용된 설문지 문항의 내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적 태도에 대한 평가 문항과 교수적 태도에 대한 평가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셋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했다.

넷째, 설문 문항 중 신뢰도 측정이 가능한 Likert 5점 척도 문항에 대하여 신뢰도 검사(Cronbach's α)를 실시하여 문항의 내적 일치성을 살펴보았다.

다섯째, 주요 독립 변인에 따른 동성에 관련 태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Two-independent sample t-test)과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서 PASW 18.0을 활용하여 분석·처리했다.

IV 주요 연구 결과 분석

1. 동성애 태도 측정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1) 개인적 태도 변인에 대한 요인분석

본 연구는 개인적 태도의 내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21개의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각회전방식(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을 채택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적 태도 문항은 Kite와 Deaux(1986)의 동성애 태도 척도(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Assessment and behavior consequence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개인적 태도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1>은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이다. Kaiser-Meyer-Olkin(KMO) 값이 0.967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나타났고, Bartlett 구형성 검정 역시 유의확률이 .000($p < .001$)으로서 자료가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 개인적 태도의 KMO(Kaiser-Meyer-Olkin)와 Bartlett검정

표본 적합성 측도		.96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4493.084
	자유도	210
	유의확률	.000

다음으로 스크린 검사 결과,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은 모두 2개가 추출되었다. 요인 I은 고유치가 6.932(설명변량 30.44%), 요인 II는 고유치가 6.147(설명변량 29.27%)이며, 설명된 총 분산은 59.71%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이 모두 .40을 넘어 전통적인 기준을 넘어 적절하였다. 전체적인 요인분석 결과는 <표 VI-2>와 같다.

<표 VI-2> 개인적 태도의 요인(성분) 점수 계수 행렬

문 항	요인분석	
	요인 I	요인 II
36.만약 내가 부모라면, 내 아들이나 딸이 동성애자라 하더라도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735	
7.나는 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동성애자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700	
4.될 수 있으면 나는 동성애자와 어울리는 것을 피하고 싶다.	.687	
12.나는 동성애적 행위를 상상하는 것이 아주 역겹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686	
8.방을 같이 쓰게 된 룸메이트가 동성애자라면 나는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길 것이다.	.673	
1.나는 동성애자와 친구가 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639	
24.나에게 있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603	
22.나는 동성애 해방운동이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602	
32.어떤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았어도, 나는 거리낌 없이 그 사람과 친구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598	
34.나는 공직 선거에 출마한 동성애자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다.	.590	
18.동성의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손을 잡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불쾌감을 준다.	.582	
20.두 남성 또는 두 여성 간의 사랑은 두 이성간의 사랑과는 상당히 다르다.	.577	
2.어떤 예술가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그 사람의 작품을 감상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432	
16.동성애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따로 격리되어야 한다.		.787
10.동성애자는 자신과 다른 성의 상대방을 싫어한다.		.746
28.동성애자는 강제적으로라도 정신과 또는 심리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737
14.동성애자는 이성애자 보다 아동학대, 성추행 및 성폭행, 관음증 같은 일탈적인 성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 크다.		.715
26.나는 나를 고용한 사람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696
30.우리 사회에서 점차 동성애를 인정해 준다면, 이는 결국 도덕적 타락을 가져올 것이다.		.680
6.동성애는 일종의 정신병이다.		.640
31.나는 어떤 조직의 구성원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망설이지는 않을 것이다.		.608
Eigen-value	6.932	6.147
분산설명(%)	30.436	29.273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개인적 태도를 묻는 21개의 문항에 대해 요인 분석한 결과 2개로 추출되어진 하위요인(요인 I, 요인 II)에 대해서, 동성애와 관련된 참고 문헌을 활용하여 요인 I은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⁸⁾’으로, 요인 II는 ‘전통적 이성애주의⁹⁾’로 명명하였다. 각각 요인의 의미는 <표 VI-3>과 같다.

<표 VI-3> 개인적 태도 척도의 영역 및 신뢰도

하위변인	정의	문항번호	신뢰도 Cronbach's α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¹⁰⁾ (subjective social distance)	동성애(자)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멀고 가까움의 정도	1, 2, 4, 7, 8, 12, 18, 20, 22, 24, 32, 34, 36	.929
전통적 이성애주의 (traditional heterosexism)	동성애를 비도덕적이며, 나쁘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평가하며, 특정 권리와 특권이 인정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태도	6, 10, 14, 16, 26, 28, 30, 31	.921

- 8) 사회적 거리감은 김상학(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개념이다. 이 연구는 본 연구의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지만, 요인 I의 문항들의 공통특성을 잘 부각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 9) 전통적 이성애주의는 Massey(2009)의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한 이성애자들의 태도 척도’에서 사용되어진 변인이다. 문항 분석 결과, 요인 II의 공통특성을 잘 부각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 10) ‘사회적 거리감’이라는 표현은 Laumann(1965)이 정의한 ‘주관적 사회적 거리(subjective social distance)’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초기의 ‘사회적 거리’ 개념을 개인의 주관적 태도라는 측면에서 보다 구체화 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 개념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 측정되었다. 예를 들어, ‘상호작용의 어떤 영역에 대하여 사람들이 허용하는 정도’(Westie, 1959), ‘어떤 대상에 대한 우호적, 비우호적 태도’(Martin, 1963), ‘긍정적, 부정적 친화성에 대한 선택’(Perrucci, 1963), ‘다양한 사회집단간의 상대적 친밀, 거부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Sherif, 1973) 등과 같은 개념으로 여러 가지 실증적 연구에 사용되었다.

2) 교수적 태도 변인에 대한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수적 태도 척도의 15개의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수적 태도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1>은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이다. Kaiser-Meyer-Olkin(KMO) 값이 0.912로 개인적 태도 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Bartlett 구형성 검정 역시 유의확률이 .000($p < .001$)으로서 요인분석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4> 교수적 태도의 KMO(Kaiser-Meyer-Olkin)와 Bartlett검정

표본 적합성 측도		.91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717.453
	자유도	105
	유의확률	.000

스크린 검사 결과,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은 개인적 태도와 동일하게 2개가 추출되었다. 요인 I은 고유치가 4.086(설명변량 27.24%), 요인 II는 고유치가 3.44(설명변량 22.92%)이며, 설명된 총 분산은 50.16%이었다. 모든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이 모두 .30을 넘어 전통적인 기준을 넘어 적절하였다. 전체적인 요인분석 결과는 <표 VI-5>와 같다.

<표 VI-5> 교수적 태도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분석	
	요인 I	요인 II
15.내가 교원임용시험 최종 면접관이라면,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힌 응시생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할 것이다.	.786	
25.교사 입장에서 볼 때, 학생들간의 '동성교제' 행위는 '이성 교제' 행위보다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일탈 행위이다.	.786	
3.나는 교사가 동성애자일 경우,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769	
29.내가 맡은 학급에 배정된 전학생이 동성애자라고 하더라도, 학급 운영에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693	
27.동성애 개념의 학습은 고등학생의 정상적인 성격체성 형성 과정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685	
13.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 동성애자가 있다면, 나는 그 학생의 성격체성을 존중하고 격려해 줄 것이다.	.634	
11.학생들이 학교에서 동성애 개념을 학습하게 되면, 동성애 성향을 떨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612	
23.현직 사회과 교사들에게 동성애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직무 연수가 제공되어야 한다.		.759
9.나는 동성애 개념을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97
21. 학교 안에도 동성애자를 위한 상담 창구와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677
19. 동성애 혐오증을 없애는 일은 오늘날 우리 학교 교육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668
33.나는 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동성애 개념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		.631
35.나는 학생들에게 동성애 차별 금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이나 사회 운동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할 의향이 있다.		.604
17. 동성애 개념의 학습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학생들의 인권 의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546
5.교실 안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동성애 혐오발언은 적극적으로 제지되어야 한다.		.324
Eigen-value	4.086	3.44
분산설명(%)	30.436	29.273

다음으로, 동성애에 대한 교수적 태도의 15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한 결과, 2개로 추출되어진 하위요인(요인 I, 요인 II)에 대해서 각각 요인 I은 ‘교육적 호모포비아’로, 요인 II는 ‘동성애 교육의 지지¹¹⁾’로 명명하였다.

<표 VI-6> 교수적 태도의 요인분석 결과

하위변인	정의	문항번호	신뢰도 Cronbach's α
교육적 호모포비아	학교교육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동성애 혐오증	3, 11, 13, 15, 25, 27, 29	.859
동성애 교육의 지지	동성애 인권 운동에 찬성하고, 동성애를 격려하는 것과 같이 다양성의 가치를 지지하는 신념	5, 9, 17, 19, 21, 23, 33, 35	.804

2. 동성애에 대한 사회교사의 태도

동성애에 대한 태도는 ‘개인적 태도’ 변수와 ‘교수적 태도’ 변수를 분석함으로써 측정하였다. 앞에서 개인적 태도와 교수적 태도는 각각 두 요인으로 추출되어, 개인적 태도는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전통적 이성애주의’로, 교수적 태도는 ‘교육적 호모포비아’와 ‘동성애 교육의 지지’로 명명한 것을 밝혔다. 먼저, 동성애에 대한 태도 변수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동성애에 대한 태

11) 교육적 호모포비아와 동성애 교육의 지지는 Massey(2009)의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한 이성애자들의 태도 척도’에서 차용한 개념이다. 문항 분석 결과, 요인 II의 공통특성을 잘 부각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도의 전반적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별, 연령, 종교, 학교 소재지, 학교 유형, 학교 규모, 교직 경력, 전공 배경, 동성애 관련 강의의 수강 경험 유무, 동성애자 접촉 경험 유무와 교과적 관점에 따라서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의 동성애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적 태도와 교수적 태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측정되었다. 그 결과,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서 개인적 태도 변수는 평균값 3.20, 교수적 태도 변수는 평균값 3.27로 둘 다 항목점수 3점 ‘중립적이다’보다 조금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교사들이 평소 동성애 및 동성애자에 대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과 학교교육 안에서 보여지는 동성애 태도가 중립적인 태도보다 좀 더 호의적이며, 긍정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 준다.

1) 변인별 사회과 교사의 동성애 태도의 특징 비교

동성애에 대한 태도 변수가 성별, 연령, 종교, 학교 소재지, 학교 유형, 학교 규모, 교직 경력, 전공 배경, 동성애 관련 강의의 수강 경험 유무, 동성애자 접촉 경험 유무, 동성애자 접촉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성별, 연령, 학교 유형, 교직 경력, 동성애자 접촉 경험 유무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분석 결과에 대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 비교

가. 성별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 비교

다음의 <표 IV-7>는 성별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동성애에 대한 태도 변수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IV-7> 성별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

종속변수	구분	N	M	SD	T값/유의확률
개인적 태도	여성	117	74.27	12.75	6.817***/.000
	남성	195	63.00	16.18	
사회적 거리감	여성	119	42.89	8.69	6.420***/.000
	남성	198	35.79	10.00	
전통적 이성애 주의	여성	120	31.11	4.88	6.021***/.000
	남성	204	27.20	6.74	
교수적 태도	여성	119	51.61	7.49	4.246***/.000
	남성	200	47.55	9.41	
교육적 호모포 비아	여성	121	23.85	4.42	4.794***/.000
	남성	202	21.11	5.73	
동성애 교육 지지	여성	120	27.75	4.44	2.310**/.022
	남성	205	26.50	4.86	

*.p<0.1, **.p<0.05, ***.p<0.01

성별에 따른 사회과 교사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정도는 여성이 남성 보다 전 영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vene의 등분산 검증 결과, 개인적 태도($F=8.483, P<.05$)와 전통적 이성애주의($F=23.468, P<.05$), 교수적 태도($F=7.768, P<.05$)와 교육적 호모포비아($F=8.408, P<.05$)를 제외하고는 등분산이 가정되었다(사회적거리감 $F=1.938, P>.05$; 동성애 교육지지 $F=.782, P>.05$). 위의 <표 IV-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차이 검증에서 여성의 경우가 개인적 태도의 평균 74.27, 교수적 태도의 평균 51.61로 남성의 경우의 개인적 태도의 평균 63.00과 교수적 태도의 평균 47.55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적 태도 $t=6.817, p < .001$; 교수적 태도 $t=4.246, p < .001$; 사회적 거리감 $t=6.420, p < .001$; 전통적 이성애주의 $t=6.021, p < .001$; 교육적 호모포비아 $t=4.794, p < .001$; 동성애교육 지지 $t=2.310, p < .05$).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있어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역할의 문화적 구조와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를 고려해 봄으로써 잘 이해할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은 ‘논의 및 시사점’에서 하겠다.

나. 연령에 따른 동성애에 관한 태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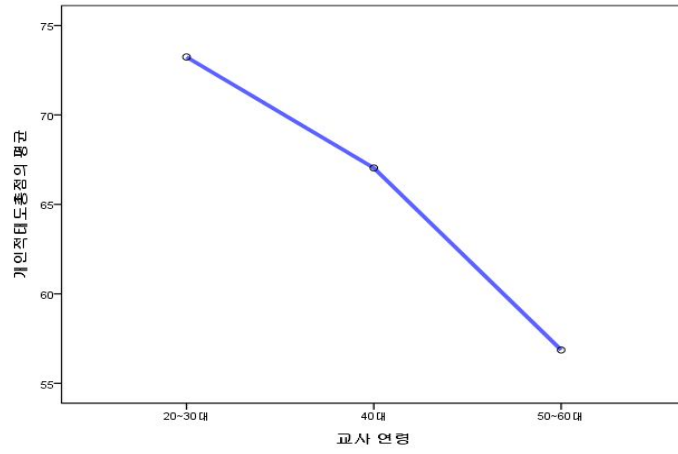
교사들의 연령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IV-8>와 같다.

<표 IV-8> 연령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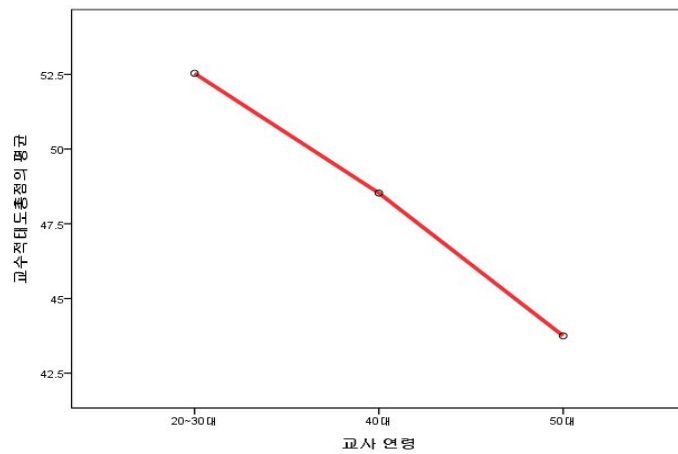
종속변수	구분	N	M	SD	F값/유의확률
개인적 태도	20~30대	131	73.24	12.940	29.535*** /0.000
	40대	107	67.04	16.733	
	50~60대	74	56.86	14.280	
사회적 거리감	20~30대	134	42.17	8.615	29.535*** /0.000
	40대	108	38.07	10.693	
	50~60대	75	32.40	8.756	
전통적 이성애 주의	20~30대	135	31.06	5.034	33.085*** /0.000
	40대	110	28.81	6.562	
	50~60대	79	24.33	6.078	
교수적 태도	20~30대	133	52.53	7.356	26.091*** /0.000
	40대	110	48.53	9.373	
	50~60대	76	43.75	8.149	
교육적 호모포 비아	20~30대	135	23.94	4.623	23.913*** /0.000
	40대	110	22.21	5.749	
	50~60대	78	18.94	5.028	
동성애 교육 지지	20~30대	136	28.63	4.156	17.763*** /0.000
	40대	11	26.33	4.911	
	50~60대	78	24.99	4.528	

*.p<0.1, **.p<0.05, ***.p<0.01

Levene의 등분산 검증 결과, 개인적 태도($F=4.416, P<.05$)와 사회적 거리감 ($F=3.110, P<.05$), 전통적 이성애주의($F=7.372, P<.10$), 교육적 호모포비아 ($F=3.688, P<.05$)를 제외하고 등분산이 가정되었다(교수적태도 $F=2.993, P>.05$; 동성애교육지지 $F=2.208, P>.05$). 위의 <표 IV-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사의 연령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적 태도 $F=29.535, p<.001$; 교수적 태도 $F=27.518, p<.001$; 사회적 거리감 $F=26.091, p<.001$; 전통적 이성애주의 $F=33.085, p<.001$; 교육적 호모포비아 $F=23.913, p<.001$; 동성애 교육지지 $F=17.763, p<.00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적 태도와 교수적 태도 모두 20-30대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며, 교사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평균값이 감소하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등분산을 가정할 경우 Scheffe분석과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을 경우 Donnett T3분석을 동시에 한 결과, 개인적 태도와 교수적 태도에서 20-30대 집단과 40대집단, 50-60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동성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IV-1> 연령에 따른 개인적 태도의 평균



<그림 IV-2> 연령에 따른 교수적 태도의 평균

다. 종교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 비교

종교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비교하기 위하여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사례수 0인 이슬람교와 사례수 3인 기타 종교를 제외하여 불교, 기독교, 무교 집단 간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유의수준 10%하에서 종교 집단간에는 전통적이성애주의($F=2.495, P<.10$)를 제외한 다른 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등분산을 가정할 경우 LSD분석을 한 결과, 전통적이성애주의에서 기독교집단과 무교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기독교집단이 이성애적 질서를 강조하고 동성애를 교리에서 어긋난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비도덕적·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무교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개인적태도 $F=2.002, P>.10$; 교수적태도 $F=1.586, P>.10$; 사회적 거리감 $F=1.881, P>.10$; 전통적 이성애주의 $F=2.495, P>.10$; 교육일탈요인 $F=2.282, P>.10$; 동성애교육지지 $F=0.250, P>.10$).

라. 학교 소재지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 비교

학교 소재지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 10%하에서 수도권¹²⁾과 비수도

12) 설문지에 제시된 16개의 지역에서 서울, 인천, 경기를 수도권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범주화하였다.

권간(개인적 태도 $t=0.668$, $P>.10$; 교수적 태도 $t=-0.126$, $P>.10$; 사회적 거리감 $t=0.441$, $P>.10$ 전통적 이성애주의 $t=0.826$, $P>.10$; 교육적 호모포비아 $t=-0.005$, $P>.10$; 동성애교육지지 $t=-0.091$, $P>.10$), 주요 광역시별(개인적 태도 $F=1.257$, $P>.10$; 교수적 태도 $F=1.695$, $P>.10$; 사회적 거리감 $F=1.396$, $P>.10$ 전통적 이성애주의 $F=1.436$, $P>.10$; 교육적 호모포비아 $F=1.564$, $P>.10$; 동성애교육지지 $F=1.179$, $P>.10$)로 구분하여 분석해 본 결과 이들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분석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종합하면, 사회과 교사들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 변수가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성별, 종교, 연령, 소속학교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종교와 학교 소재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있어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성애 태도 변수의 모든 영역에서 여교사가 남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성애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2) 학교 환경 요인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 비교

가. 학교유형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 비교

국·공립 학교와 사립학교의 학교유형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IV-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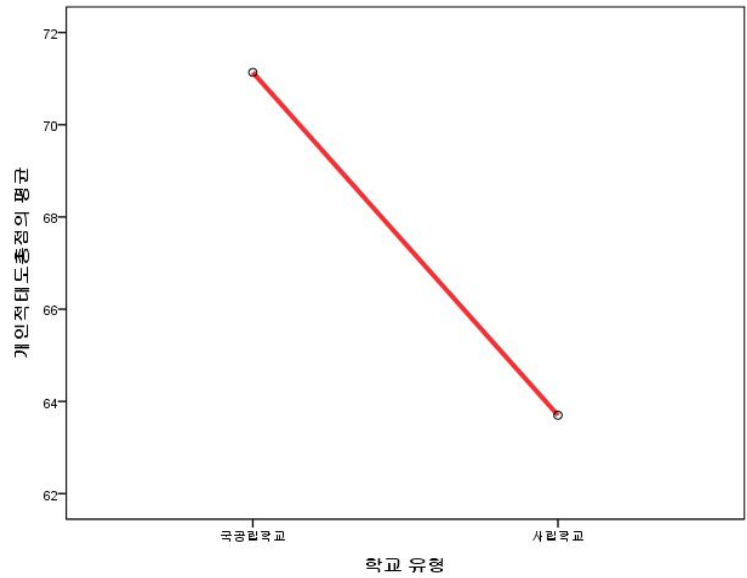
<표 IV-9> 학교유형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

종속변수	구분	N	M	SD	T값/유의확률
개인적 태도	국·공립학교	148	71.14	14.626	4.212***/.000
	사립학교	163	63.70	16.343	
사회적 거리감	국·공립학교	150	40.98	9.691	4.329***/.000
	사립학교	166	36.17	10.022	
전통적 이성애 주의	국·공립학교	153	30.11	5.548	3.986***/.000
	사립학교	170	27.36	6.845	
교수적 태도	국·공립학교	153	50.41	9.045	2.577**/.010
	사립학교	165	47.84	8.731	
교육적 호모포 비아	국·공립학교	154	23.064	5.27	2.952***/.003
	사립학교	168	21.29	5.486	
동성애 교육 지지	국·공립학교	154	27.40	4.916	1.513/.131
	사립학교	170	26.60	4.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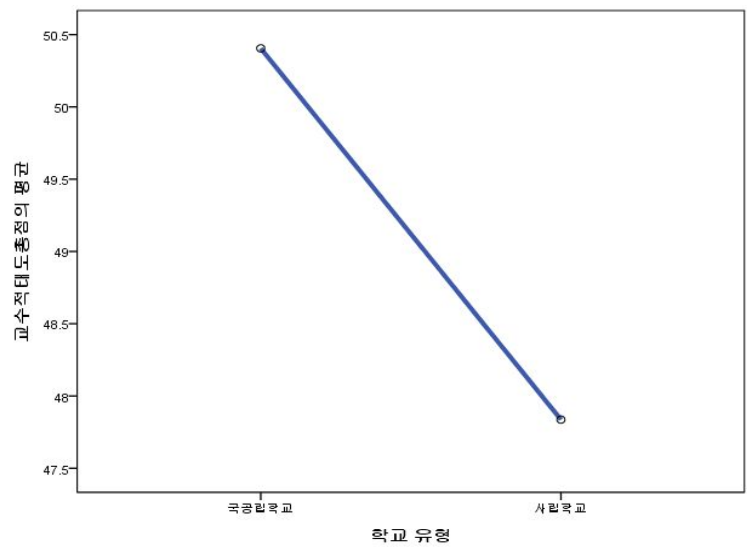
*.p<0.1, **.p<0.05, ***.p<0.01

<표 IV-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유형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평균은 모든 영역에서 국·공립 학교가 사립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vene의 등분산 검증 결과, 전통적이성애주의($F=12.075, P<.05$)을 제외하고는 등분산이 가정되었다(개인적태도 $F=2.690, P>.05$; 교수적태도 $F=.106, P>.05$; 사회적 거리감 $F=0.060, P>.05$; 교육적 호모포비아 $F=0.370, P>.05$; 동성애교육지지 $F=0.609, P>.05$). t-검정 결과 유의수준 10%하에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는 교수적 태도의 하위요인인 동성애교육지지를 제외한 모든 영역, 즉 개인적 태도, 사회적 거리감, 전통적 이성애주의, 교수적 태도, 교육일탈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적 태도 $t=4.212, p<.001$; 사회적거리감 $t=4.329, p<.001$; 전통적이성애주의 $t=3.986, p<.001$; 교수적태도 $t=2.577, p<.01$; 교육일탈요인 $t=2.952, p<.01$). 이는 국·공립 학교가 사립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있어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V-3> 학교 유형에 따른 개인적 태도 총점의 평균



<그림 IV-4> 학교 유형에 따른 교수적 태도 총점의 평균

나. 학교규모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 비교

학교 규모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하였다. 유의수준 10%하에서 소·중·대 학급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본 결과 이들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개인적태도 $F=0.109$, $P>.10$; 교수적태도 $F=0.129$, $P>.10$; 사회적거리감 $F=.060$, $P>.10$; 전통적이성애주의 $F=0.361$, $P>.10$; 교육적 호모포비아 $F=0.080$, $P>.10$; 동성애교육지지 $F=0.499$, $P>.10$).

이상에서, 동성애에 대한 태도 변수가 학교 환경 요인인 학교 유형과 학교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학교 규모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 유형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국공립학교의 경우가 사립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의 유형에 따른 개별 학교의 분위기가 사회교사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교사배경 요인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 비교

가. 교직경력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 비교

교직경력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IV-10>과 같다.

<표 IV-10> 교직경력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

종속변수	구분	N	M	SD	F값/유의확률
개인적 태도	10년 미만	114	73.61	13.727	24.944***/0.000
	20년 미만	82	70.00	15.255	
	30년 미만	100	59.88	14.774	
사회적 거리감	10년 미만	117	42.42	9.080	24.550***/0.000
	20년 미만	83	40.19	9.843	
	30년 미만	101	33.80	8.976	
전통적 이성애 주의	10년 미만	117	31.18	5.328	23.767***/0.000
	20년 미만	84	29.68	6.006	
	30년 미만	106	25.84	6.380	
교수적 태도	10년 미만	116	52.87	7.423	26.919***/0.000
	20년 미만	83	50.16	8.746	
	30년 미만	104	44.79	8.681	
교육적 호모포 비아	10년 미만	117	24.02	4.787	19.527***/0.000
	20년 미만	84	23.14	5.310	
	30년 미만	106	19.92	5.162	
동성애 교육 지지	10년 미만	119	28.89	4.092	21.623***/0.000
	20년 미만	84	27.02	4.706	
	30년 미만	105	24.95	4.691	

*.p<0.1, **.p<0.05, ***.p<0.01

교직경력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례수가 적은 교직경력 30년 이상인 교사를 제외한 세 집단, 즉 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20~30년 미만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교직경력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정도는 전체적으로 모든 요소, 즉 개인적 태도(F=24.9449,

P<.001), 사회적 거리감 (F=24.550, P<.001). 전통적 이성애주의 (F=23.767, P<.001), 교수적태도(F=26.919, P<.001), 교육적 호모포비아 (F=19.527, P<.001), 동성애교육지지 (F=21.623,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요소에서 교직경력이 10년 미만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며, 교직경력이 오래될수록 낮은 평균점수로 나타났다.

특히 등분산을 가정할 경우 Scheffe분석과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을 경우 Donnett T3분석을 동시에 한 결과, 동성애 교육지지에서 10년 미만의 집단과 20년 미만의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동성애교육지지에서 10년 미만의 교사가 20년 미만의 교사보다 훨씬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있어 관용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나. 전공배경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 비교

전공배경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하였다. 유의수준 10%하에서 사범대학 지리·역사·일반사회 교육 전공자와 일반대학 교직이수자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본 결과, 전통적이성애주의 (F=2.582, P<.10)를 제외한 요소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모든 요소에서 일반사회 교육 전공자 집단의 평균 점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개인적태도 F=1.596, P>.10; 교수적태도 F=1.403, P>.10; 사회적거리감 F=1.166, P>.10; 교육적 호모포비아 F=1.757, P>.10; 동성애교육지지 F=0.691, P>.10). 이는 일반사회의 예비교사교육과정이 젠더교육차원에서 동성애 개념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전공배경별로 유

의미한 차이가 발휘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등분산을 가정할 경우 LSD분석을 한 결과, 전통적이성애주의에서 일반사회교육 집단과 일반대학의 교직이수자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전공심화과정에서 센터 교육을 이수한 사회교육 전공자 중에서 특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주제를 접할 가능성이 많았던 일반사회교육전공자들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했던 일반대학 교직이수자들보다 전통적인 이성애주의를 갖고 동성애를 비도덕적이며 나쁘게 간주하는 경향이 보다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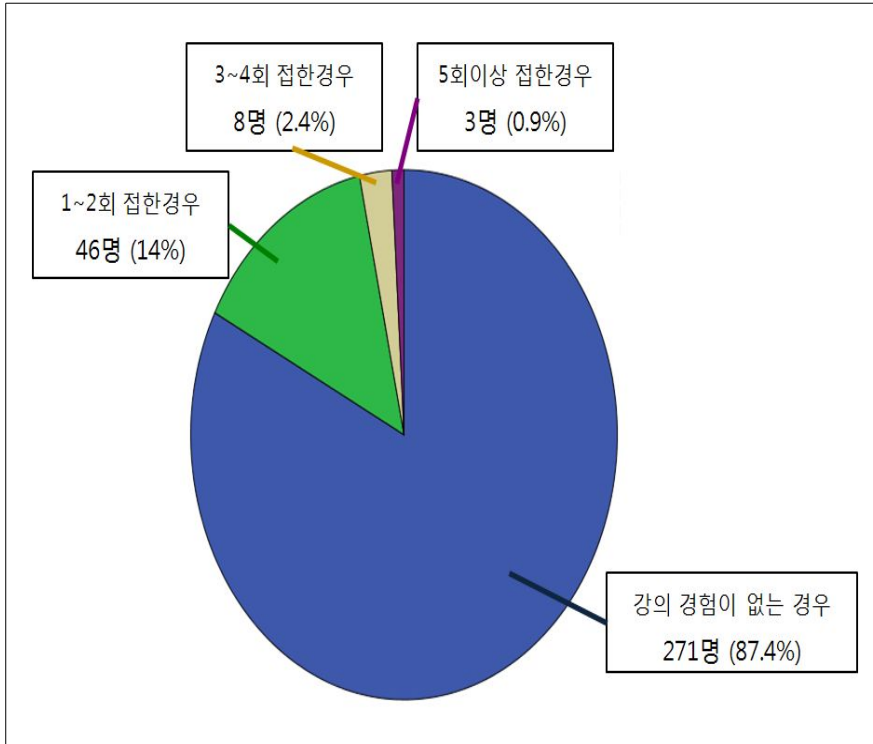
앞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교사배경 요인인 교직경력, 전공배경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정도가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전공 배경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직 경력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교직 경력이 낮을수록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있어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 동성애개념 접촉 요인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 비교

가. 동성애를 주제로 한 강의 수강 빈도에 따른 동성애에 관한 태도 비교

동성애를 주제로 한 강의를 수강한 경험의 빈도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동성애 관련 강의(수업 또는 직무연수)의 경험 유무와 빈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결과, 동성애 주

제의 강의를 접해본 경험이 ‘없음’ 경우는 전체 응답의 82.4%(271명)였고, 강의를 ‘1-2회’ 접한 경우는 전체 응답의 14%(46명), ‘3-4회’ 접한 경우는 2.4%(8명), ‘5회 이상’인 경우는 0.9%(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빈도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차이 검증은 의미가 없을 것이므로 동성애 주제의 강의를 수강한 경험의 유무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하였다. 유의수준 10%하에서 강의의 수강 경험 유무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 이들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개인적태도 $F=1.253$, $P>.10$; 교수적태도 $F=0.001$, $P>.10$; 사회적거리감 $F=0.720$, $P>.10$; 전통적 이성애주의 $F=2.599$, $P>.10$; 교육적 호모포비아 $F=1.053$, $P>.10$; 동성애교육 지지 $F=1.315$, $P>.10$). 이는 동성애 강의 수강 경험자 대부분이 1-2회의 일회성 강의를 접했기 때문에, 강의로 인해 이들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즉, 동성애에 대한 그들의 혐오의 정도를 바꿀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동성애 강의 수강 경험자(57명) 중에 동성애 혐오가 큰 사람이 많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IV-5> 동성애 관련 강의 경험 수강 빈도

나. 동성애 접촉 경험 유무에 따른 동성애에 관한 태도 비교

동성애 지인의 접촉 경험 유무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IV-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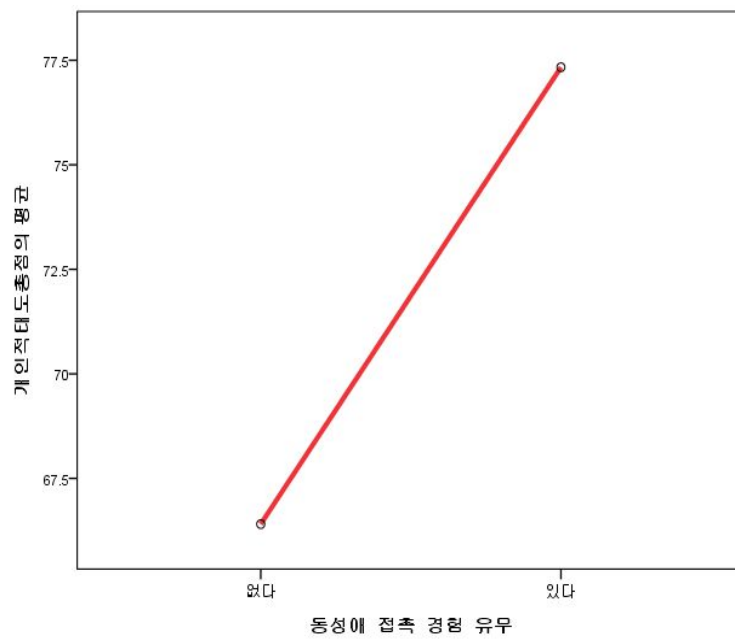
<표 IV-11> 동성애 접촉 경험 유무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

종속변수	구분	N	M	SD	F값/유의확률
개인적 태도	없다	286	66.41	15.958	10.667***/0.001
	있다	24	77.33	12.798	
사회적 거리감	없다	290	37.79	10.020	16.399***/0.000
	있다	25	46.16	8.562	
전통적 이성애 주의	없다	297	28.45	6.460	5.374**/0.021
	있다	25	31.52	5.026	
교수적 태도	없다	292	48.67	8.987	8.177***/0.005
	있다	25	53.96	7.300	
교육적 호모포비아	없다	296	21.89	5.405	9.619***/0.002
	있다	25	25.36	4.974	
동성애 교육 지지	없다	297	26.83	4.705	3.857*/0.050
	있다	26	28.73	4.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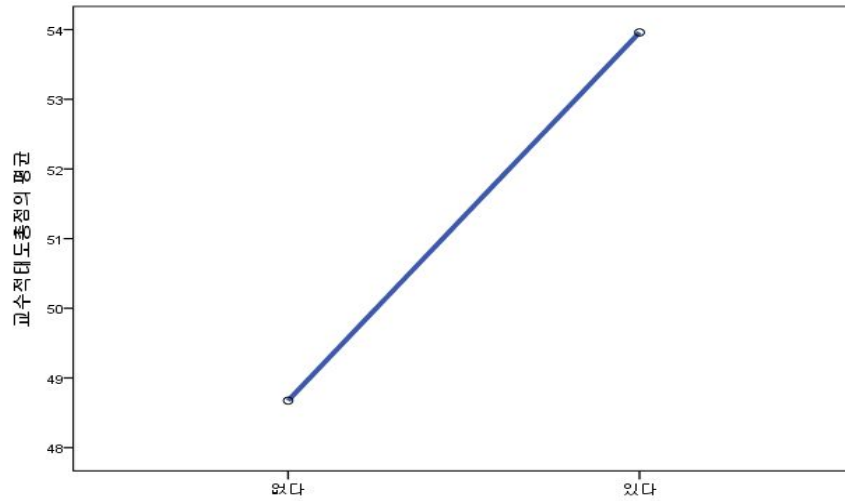
*.p<0.1, **.p<0.05, ***.p<0.01

동성애 지인의 접촉경험 유무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평소 잘 알고 있는 동성애 지인의 유무에 대해서 응답자에게 물어보았다. 그 결과, 동성애 지인이 ‘없는’ 경우는 전체 응답의 91.5%(301명)이었고, 동성애 지인이 ‘한 명’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의 6.1%(20명), ‘두 명’ 있는 경우는 1.5%(5명), ‘세 명 이상’인 경우는 0.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성애 지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10%하에서 모든 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개인적태도 $F=10.667$, $P<.05$; 교수적태도 $F=8.117$, $P<.05$; 사회적 거리감 $F=16.399$, $P<.01$; 전통적이성애주의 $F=5.374$, $P<.05$; 교육적 호모포비아 $F=9.619$, $P<.05$; 동성애교육지지 $F=3.857$, $P=.0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요소에서 동성애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 즉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동성애자 지인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동성애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허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두 가지가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 번째 가능성은 동성애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동성애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동성애자들과의 접촉으로 인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다. 특히, 두 번째 해석은 이질 문화 집단들 사이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자신과 다른 문화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촉진시킬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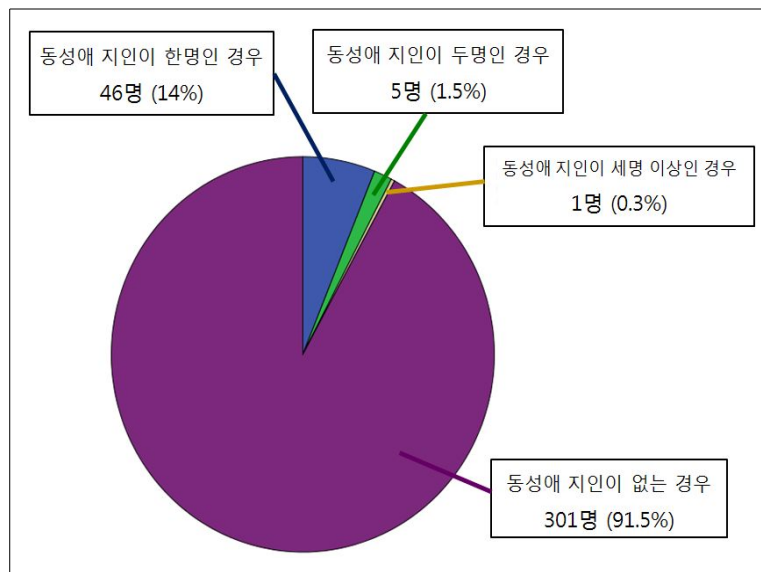
다는 Allport(1954)의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는 동성애자 지인의 여부가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IV-6> 동성애자 접촉경험에 따른 개인적 태도 총점의 평균



<그림 IV-7> 동성애자 접촉 경험에 따른 교수적 태도 총점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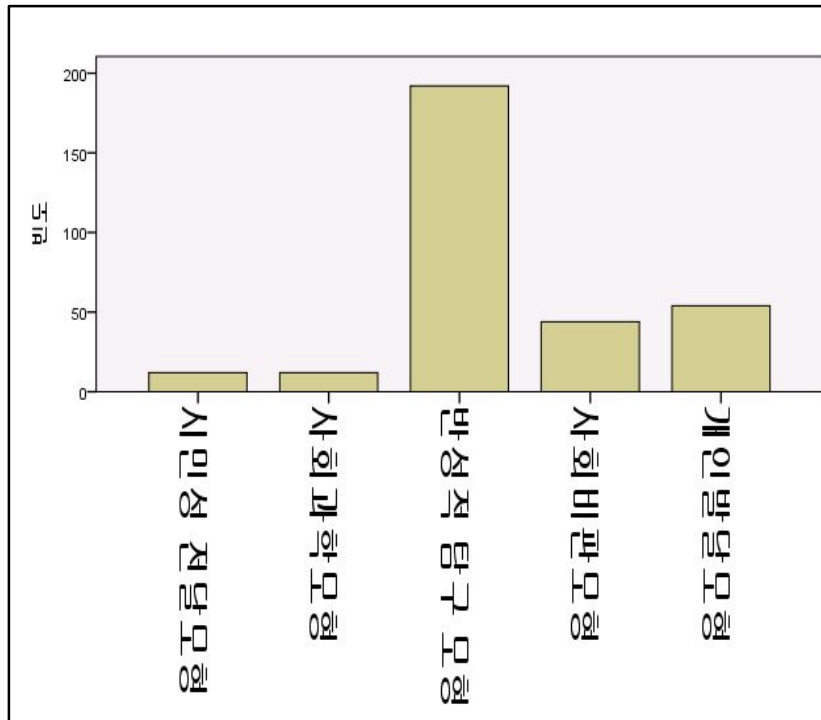


<그림 IV-8> 동성애자 지인의 여부

앞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동성애개념 접촉 요인인 동성애를 주제로 한 강의의 수강 여부, 동성애자 접촉 경험 유무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정도가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동성애를 주제로 한 강의의 수강 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성애자 접촉 경험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동성애자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평소 알고지내는 동성애자 지인이 있는 경우,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있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며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2) 사회교과의 목표에 대한 관점별 동성애 태도의 특징 비교

사회교과의 목표에 대한 관점에 따라 사회과 교사들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사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사회 교과교육의 관점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다음으로 사회교과의 목표에 대한 관점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IV-9>가장 선호하는 교과적 관점의 빈도

<그림 IV-9>과 같이 사회과 교사들에게 가장 선호하는 교과적 관점을 물어본 결과, 반성적 탐구 모형이 58.4%(192명)로 가장 많았고, 시민성 전달모형과 사회과학모형은 각각 전체 응답의 3.6%(12명), 사회비판모형은 13.4%(44명), 개인발달모형은 16.4%(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요소에서 사회비판 모형을 가장 선호하는 교사에게서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민성 전달 모형을 선호하는 교사일수록 평균점수가 낮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IV-12>과 같다.

<표 IV-12> 사회교과의 목표에 대한 관점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

종속변수	구분	N	M	SD	F값/유의확률
개인적 태도	시민성전달모형	12	59.67	13.627	4.380***/0.002
	사회과학모형	11	60.00	13.183	
	반성적탐구모형	187	68.26	15.130	
	사회비판모형	39	73.08	15.244	
	개인발달모형	49	61.86	17.761	
사회적 거리감	시민성전달모형	12	33.67	7.726	3.206**/0.013
	사회과학모형	11	35.09	8.837	
	반성적탐구모형	189	38.85	9.664	
	사회비판모형	40	41.80	10.156	
	개인발달모형	50	35.66	11.313	
전통적 이성애 주의	시민성전달모형	12	26.00	6.281	5.448***/0.000
	사회과학모형	12	24.67	4.793	
	반성적탐구모형	190	29.35	5.958	
	사회비판모형	43	30.72	5.825	
	개인발달모형	53	26.72	7.325	
교수적 태도	시민성전달모형	12	44.67	9.008	3.705***/0.006
	사회과학모형	12	44.67	4.499	
	반성적탐구모형	189	49.60	8.878	
	사회비판모형	42	51.98	8.916	
	개인발달모형	51	46.78	8.884	
교육적 호모포 비아	시민성전달모형	12	19.75	5.883	2.229*/0.066
	사회과학모형	12	20.42	3.942	
	반성적탐구모형	189	22.50	5.447	
	사회비판모형	42	23.19	5.138	
	개인발달모형	53	20.87	5.664	
동성애 교육 지지	시민성전달모형	12	24.92	4.400	3.719/0.006
	사회과학모형	12	24.52	3.934	
	반성적탐구모형	192	27.14	4.684	
	사회비판모형	44	28.75	4.540	
	개인발달모형	52	26.15	4.675	

*P<.10 **P<.05 ***P<.01

사회교과의 목표에 대한 관점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교과의 목표에 대한 관점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정도는 개인적 태도($F=4.380, P<.01$), 교수적 태도($F=3.705, P<.01$),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F=3.206, P<.05$) 및 전통적 이성애주의($F=5.448, P<.001$), 마지막으로 동성애교육지지($F=3.719,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등분산을 가정할 경우 Scheffe·Bonferroni분석과,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을 경우 Donnett T3분석을 동시에 한 결과, 개인적 태도·사회적 거리감·교수적 태도에서 사회비판모형을 선호하는 집단과 개인발달모형을 선호하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해, 개인적 태도·사회적 거리감·교수적 태도에서 모두 사회비판모형을 선호하는 집단이 개인발달모형을 선호하는 집단보다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또한 전통적이성애주의에서는 사회비판모형을 선호하는 집단이 개인발달모형 선호집단과 사회과학모형 선호집단 보다 동성애에 대한 태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동성애교육지지에서는 사회비판모형 선호집단이 사회과학모형 선호집단보다 동성애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사회비판모형을 선호하는 교사가 개인발달모형을 선호하는 교사보다 허용적이고 긍정적인 동성애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비판모형의 핵심목표가 사회 제도의 불평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있는데 반해, 개인발달모형이 개인의 자긍심·자존감의 함양을 강조하고 개인과 집단의 성공 사례를 학습하는 데 수업의 중점을 둔다는 점을 상기하면, 사회비판모형을 강조하는 교사가 성적 불평등, 즉 동성애의 주제에 관심을 갖고,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는 결과다.

V. 결론 및 시사점

1. 분석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주요 변인들이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에 주목하여 주요 발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과 교사가 동성애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주요 변인별로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별, 연령, 학교 유형, 교직 경력, 동성애자 접촉 경험 유무에 따라 사회과 교사들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여교사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교직경력이 적을수록, 국·공립학교 일수록 동성애에 대하여 관용적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동성애자의 지인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동성애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2. 사회교과의 목표에 대한 관점에 따라 사회과 교사들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의 관점(시민성 전달모형, 사회과학 모형, 반성적 탐구 모형, 사회비판 모형, 개인 발달 모형)중에서 사회비판모형을 선호하는 교사가 개인발달모형을 선호하는 교사보다 허용적이고 긍정적인 동성애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이상의 두 가지 결론에 근거하여, 동성애(자)에 관한 편견의 감소와 인권 교육의 방안 마련을 위해 학교 및 교육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적인 가부장적 이성애주의의 영향

본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있어 관용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의 문화적 구조와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를 고려해봄으로써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현대의 사회에서 이성애주의는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남성은 이성애주의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성애주의의 기준에 반하는 동성애자의 존재를 거부하게 된다(Herek, 1988). 이러한 동성애 혐오 태도와 가부장적 이성애주의의 높은 관련성은 동성애 혐오의 근본적인 원인이 전통적인 가부장적 이성애주의 이데올로기에 있음을 시사한다. 즉, 동성애(자)에 관한 편견의 감소와 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단순히 학교교육 차원에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동성애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와 결부된 이성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과 변화가 근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2) 동성애 접촉 프로그램의 기획과 구성

동성애 접촉 경험이 있었던 교사들, 즉 평소 알고지내는 동성애자 지인이 있는 교사들이 동성애 접촉 경험이 없는 교사들보다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있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며 호의적인 사실은,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동성애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동성애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동성애자들과의 접촉으로 인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다. 특히, 두 번째 해석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고려한다면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동성애자들과의 접촉으로 인해 그들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감소된다면, 예비 또는 현직교사 교육과정에서 동성애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이질 문화 집단들 사이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자신과 다른 문화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Allport(1954)의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과도 일치한다. 또한 많은 학자들이 자신과 다른 문화 집단에 대한 접촉 경험의 중요성과 효과를 강조했고(Pang, 1994; Merryfield, 2001; Banks et al, 2003; Klak & Martin, 2003; Tang & Choi, 2004), Banks 등(2003)은 집단간 접촉이 다른 문화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줄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윤경, 2007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주장들은 예비교사 교육과정과 현직 교사의 연수 프로그램에 동성애자 집단과 접촉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사들의 동성애(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이고, 그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예비 또는 현직교사 교육과정에서는 교사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동성애

(자)와 직·간접 접촉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젠더 관련 분석 프로그램 강좌의 개설, 동성애자를 다룬 다큐멘터리의 시청, 동성애자 유명 인사의 소개나 동성애 문제를 다룬 자료집의 제공 등은 간접적인 동성애 접촉 기회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동성애자 강사와 같은 자원 인사를 초빙하는 방법 등은 직접적인 동성애 접촉 기회로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이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동성애 접촉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접촉 경험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구성하고 어떤 맥락 속에서 제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박윤경, 2007). 즉 동성애(자)의 접촉이 동성애 태도를 항상 호전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 접촉맥락과 개입전략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다문화교육의 지평 확대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다문화교육의 차원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관한 편견의 감소와 인권 교육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과 교사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는 경우에 있어서 아직 교사들이 다문화교육과 동성애의 연관성을 잘 잊지 못한다는 인식을 받았고, 본 연구에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한 교사들도 상당수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 교사의 차별적인 인식과 태도는 일반 학생들의 생각과 행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사회적 소수자 특히 동성애의 인권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인식하는 다문화교육의 협의의 개념을 광의의 개념으로 넓힐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문화교육은 인종, 민족, 성, 문화, 언어, 사회 계층, 종교 등과 관계없이 학

교 교육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한다(Banks, 2006).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을 이해함에 있어 흔히 일으키게 되는 혼돈이 다문화교육의 핵심이 민족이나 인종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인종과 민족의 차원에서 생겨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다문화교육의 핵심은 차이(difference)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이제 다문화 교실수업에서 교사들은 다문화교육의 협의의 개념을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성적 소수자, 특히 동성애자의 존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교육적 움직임을 능동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주요 변수와 사회 교과의 목표에 대한 관점에 따라 사회 과 교사들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첫째, 아직 국내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표준화 검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개인적 태도를 검토하기 위해 Kite와 Deaux(1986)가 개발한 동성애태도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비록 연구자가 Kite와 Deaux의 동성애 태도척도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항들이 한국 이성애자들의 태도를 측정하는데 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검사도구가 한국 사회의 특수한 현실이나 문화적 맥락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작업이 부족했다는 한계가 남는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한국 문화와 사회적 맥락을 기초로 한 동성애 태도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보다 엄격한 타당화 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자 지인의 여부에 따라 동성애자 접촉 경험의 유무를 판단하고, 그 결과 접촉 경험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Allport(1954)의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후속연구에서는 동성애자 접촉 경험이 될 수 있는 모든 기준들을 세워보고, 다양한 연구를 시도해봄으로써 접촉 효과를 검증하여 접촉 가설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레즈비언과 게이에 따라 동성애자 접촉 경험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또는 긍정적·부정적 접촉 경험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결과를 좀 더 심층적으로 드러내는 연구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이성애자 사회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탐색적으로 살펴본 연구이다. 동성애(자)에 대한 다문화 교육과정과 교육이 동성애와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에서 경험하는 동성애(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성애자 교사, 동성애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가 진행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0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 연구용역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상학(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제 5권 1호, pp. 169-206.
- 김용희·반건호(2005). “한국판동성애 공포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 10권 3호, pp. 327-336.
- 박수진(2003). “청소년의 팬픽문화와 동성애에 대한 태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윤경(2007). “다문화 접충 경험의 교육적 의미 이해 : 초등 예비 교사들의 문화 다양성 관련 변화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제 39권 3호, pp. 147-183.
- 박임효(2008). “동성애자의 성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교육학적 탐색”.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영석·이정림·차주환(2006). “성역할태도, 종교성향, 권위주의 및 문화적 가치가 대학생의 동성애혐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제 18권 1호, pp. 177-199.
- 윤가현(1998). 「동성애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장재홍 외 5인(2003). “청소년의 고민: 내가 동성애자인가요?”. 「한국청소년상담원 연구보고서(49)」,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조대훈(2006). “침묵의 교육과정을 넘어서: 성적 소수자의 인권과 사회교육”. 「시민교육연구」, 제 38권 3호, pp. 211-241.
- 한유경(2005). “단위학교 교육비 구조 및 교수학습 활동비 결정요인 분석”. 「한국교육

- 』, 제 32권 1호, pp. 103-122.
- Eric, K.(2006). Attitude Towards Homosexuality, Lesbian and Gay Men.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 Larsen, K. S. & Cate, R. & Reed, M.(1983). Anti-gay Attitudes, Religious Orthodoxy, Permissiveness, and Sexual Information : A study of the Attitudes of Heterosexuals toward Homosexuality. The Journal of Sex Research. Vol.19, No.2, pp. 105-118.
- Massey, S. G.(2009). Polymorphous prejudice: liberating the measurement of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Journal of homosexuality. Vol.56, No.2, pp. 147-172.
- Herek, G. M. & Glunt, E. K.(1993). Interpersonal Contact and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Gay Men: Results From A National Survey. The Journal of Sex Research. Vol.30, No.3, pp. 239-244.
- Larsen, K. S. & Reed, M. & Hoffman, S.(1980). Attitudes of Heterosexuals Toward Homosexuality: A likert-Type Scale and Construct Validity. The Journal of Sex Research. Vol.16, No.3, pp. 245-257.
- Kite, M. E. & Deaux, K.(1986).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Assessment And Behavioral Consequence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7,No.2, pp. 137-162.
- Herek, G. M.(1988).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correlates and gender difference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Vol.25, No.4, pp. 451-477.

Abstract

This research aims at observing the behavior of a current teacher in Sociology towards homosexuality as a sexual minority. The study goes beyond the understanding of the behavior and point of view of the teacher towards sexual minorities, so as to provide basic documents for teacher education and multicultural classes, which will help reduce the social prejudice against minorities and provide for a proper education on their human rights. My first step was to determine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ach different attitude of the teacher towards homosexuality. My next step was to find differences, if any, in the attitude and perception among teachers towards homosexuality according to the objective of the subject of sociology. I conducted surveys with a total of 329 social sciences teachers, 156 of them working in national and public schools and 173 of them working in private schools. My statistic analysis was based on PASW 18.0.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attitudes towards homosexuality were diverse according to the determinants. More specifically, the teachers showed different perceptions and level of behavior depending on their sex, age, type of school, teaching experience and contact with homosexuals. Young female teachers, with little experience in teaching and working in national or public schools displayed relatively more tolerance. In addition, having a homosexual among their acquaintances led towards a more positive attitude.

2. The teachers also presented distinct perceptions and behaviors in respect to their viewpoints towards the objective of their subject. Among the five points of view (delivery of citizenship, social science, discovery based on self-reflection, criticism towards society, self development), teachers with preference in the critical

type towards society were more acceptant and positive than those with preference in the self development type.

- 부 록 -

1. 통계분석 결과

(1) 종교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

종속변수	구분	N	M	SD	F값/유의 확률
개인적 태도	불교	47	66.38	17.098	2.002/0.137
	기독교	133	65.43	16.198	
	무교	130	69.28	15.161	
사회적 거리감	불교	47	38.38	10.698	1.881/0.154
	기독교	134	37.25	10.307	
	무교	133	39.65	9.697	
전통적 이성애 주의	불교	49	37.79	6.773	2.495*/0.084
	기독교	139	28.06	6.533	
	무교	133	29.60	6.087	
교수적 태도	불교	48	48.79	8.440	1.586/0.206
	기독교	136	48.15	9.010	
	무교	133	50.05	9.053	
교육적 호모포 비아	불교	49	22.04	5.094	2.282/0.104
	기독교	139	21.46	5.489	
	무교	133	22.86	5.449	
동성애 교육 지지	불교	48	26.87	4.536	0.250/0.779
	기독교	139	26.77	4.804	
	무교	134	27.17	4.841	

*.p<0.1, **.p<0.05, ***.p<0.01

(2) 학교 소재지(수도권-비수도권 비교)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

종속변수	구분	N	M	SD	T값/유의확률
개인적 태도	수도권	132	67.93	16.102	0.668/0.505
	비수도권	180	66.71	15.844	
사회적 거리감	수도권	133	38.75	10.166	0.441/0.659
	비수도권	184	38.25	10.116	
전통적 이성애 주의	수도권	136	29.00	6.471	0.826/0.409
	비수도권	188	28.40	6.353	
교수적 태도	수도권	133	48.98	9.301	-0.126/0.900
	비수도권	186	49.11	8.717	
교육적 호모포 비아	수도권	135	22.14	5.574	-0.005/0.996
	비수도권	188	22.14	5.356	
동성애 교육 지지	수도권	135	26.84	4.891	-0.091/0.927
	비수도권	190	26.98	4.647	

*.p<0.1, **.p<0.05, ***.p<0.01

(3) 학교 소재지(광역시별 비교)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

종속변수	구분	N	M	SD	F값/유의확률
개인적 태도	서울	90	68.06	16.991	1.257/0.280
	부산	22	63.36	12.621	
	대구	13	62.00	17.311	
	인천	10	73.60	13.978	
	광주	13	68.69	18.504	
	대전	20	73.20	15.800	
	울산	13	72.62	18.998	
사회적 거리감	서울	90	39.01	10.667	1.396/0.219
	부산	23	35.82	7.860	
	대구	13	36.00	11.232	
	인천	10	42.60	9.008	
	광주	13	38.84	11.051	
	대전	20	42.95	10.585	
	울산	13	42.07	11.397	
전통적 이성애 주의	서울	83	28.80	6.849	1.436/0.203
	부산	23	27.26	5.577	
	대구	14	25.21	9.874	
	인천	10	31.00	5.228	
	광주	13	29.84	8.234	
	대전	21	30.23	5.682	
	울산	14	30.57	7.602	

*.p<0.1, **.p<0.05, ***.p<0.01

종속변수	구분	N	M	SD	F값/유의 확률
교수적 태도	서울	91	49.05	9.494	1.695/0.125
	부산	22	47.91	7.696	
	대구	14	45.00	9.315	
	인천	10	51.80	10.064	
	광주	13	50.92	7.533	
	대전	20	51.65	7.471	
	울산	14	54.14	10.037	
교육적 호모포비아	서울	92	22.30	5.750	1.564/0.160
	부산	23	21.73	4.564	
	대구	14	19.28	5.195	
	인천	10	23.00	6.000	
	광주	13	22.84	5.997	
	대전	20	23.50	4.762	
	울산	14	25.21	6.091	
동성애 교육 지지	서울	92	26.82	5.080	1.179/0.320
	부산	23	26.26	4.169	
	대구	14	25.71	5.060	
	인천	10	28.80	4.984	
	광주	13	28.07	5.794	
	대전	21	28.33	3.941	
	울산	14	28.92	4.681	

*.p<0.1, **.p<0.05, ***.p<0.01

(4) 학교 규모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

종속변수	구분	N	M	SD	T값/유의확률
개인적 태도	소	27	68.63	13.779	0.109/0.896
	중	184	67.18	15.954	
	대	99	67.05	16.710	
사회적 거리감	소	27	39.11	8.850	0.060/0.942
	중	188	38.38	10.218	
	대	100	38.44	10.449	
전통적 이성애 주의	소	30	29.26	5.794	0.361/0.697
	중	187	28.80	6.291	
	대	104	28.27	6.827	
교수적 태도	소	30	48.80	8.198	0.129/0.879
	중	186	49.31	8.965	
	대	101	48.78	9.266	
교육적 호모포 비아	소	30	22.46	5.022	-0.080/0.923
	중	189	22.16	5.538	
	대	102	22.01	5.469	
동성애 교육 지지	소	30	26.33	4.096	-0.499/0.607
	중	188	27.18	4.710	
	대	104	26.83	5.012	

*.p<0.1, **.p<0.05, ***.p<0.01

(5) 전공배경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

종속변수	구분	N	M	SD	F값/유의 확률
개인적 태도	지리교육	63	66.79	16.067	1.596/0.191
	역사교육	70	65.79	16.033	
	일반사회교육	74	69.97	14.676	
	일반대학교직이수자	66	64.61	14.777	
사회적 거리감	지리교육	65	38.67	10.297	1.166/0.323
	역사교육	70	37.58	9.957	
	일반사회교육	74	39.67	9.943	
	일반대학교직이수자	67	36.77	9.081	
전통적 이성애 주의	지리교육	65	28.20	6.354	2.582*/0.054
	역사교육	72	28.15	6.647	
	일반사회교육	77	30.27	5.374	
	일반대학교직이수자	68	27.75	6.045	
교수적 태도	지리교육	67	48.52	8.675	1.403/0.242
	역사교육	70	48.36	9.704	
	일반사회교육	75	50.53	8.718	
	일반대학교직이수자	65	47.74	7.370	
교육적 호모포 비아	지리교육	67	21.77	5.339	1.757/0.156
	역사교육	71	21.91	5.538	
	일반사회교육	76	23.23	5.321	
	일반대학교직이수자	67	21.32	4.927	
동성애 교육 지지	지리교육	67	26.74	4.415	0.691/0.558
	역사교육	71	26.50	5.137	
	일반사회교육	76	27.42	4.520	
	일반대학교직이수자	67	26.44	4.261	

*.p<0.1, **.p<0.05, ***.p<0.01

(6) 동성애를 주제로 한 강의수강 빈도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

종속변수	구분	N	M	SD	F값/유의확률
개인적 태도	없다	257	67.61	15.746	1.253/0.264
	있다	54	64.94	16.574	
사회적 거리감	없다	261	38.63	10.064	0.720/0.397
	있다	55	37.36	10.312	
전통적 이성애 주의	없다	267	28.88	6.293	2.599/0.108
	있다	56	27.37	6.716	
교수적 태도	없다	263	49.03	8.947	0.001/0.979
	있다	55	49.00	9.033	
교육적 호모포 비아	없다	267	22.26	5.428	1.053/0.306
	있다	55	21.43	5.462	
동성애 교육 지지	없다	267	26.82	4.737	1.315/0.252
	있다	57	27.61	4.780	

*.p<0.1, **.p<0.05, ***.p<0.01

2. 설문지

동성애에 관한 고등학교 사회 교사의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연구의 책임연구자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조대훈입니다. 학교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본 설문에 응해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본 설문 조사의 목적은 고등학교 사회 선생님들이 동성애(자)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태도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연구는 동성애 개념에 대해 가지는 개인의 인식이 사회 선생님들의 교과관, 정치적·종교적 성향 등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 알아보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연구 주제에 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여, 이 번 연구 결과에 저희 연구진은 나름대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앞서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를 우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선생님 개인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전체 응답자의 일반적-평균적 경향만 연구 보고서에 활용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아주 작은 기념품(수지침 볼펜)을 동봉하였으니, 너무 약소하지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본 설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에 협조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2010년 4월 15일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조대훈(tcjjang@sungshin.ac.kr) · 박선진(psj7904@hanmail.net)

(교수 연구실: 02-920-7448)

문항 내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중립적이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5. 교실 안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동성애 혐오 발언은 적극적으로 제지되어야 한다.					
6. 동성애는 일종의 정신병이다.					
7. 나는 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동성애자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8. 방을 같이 쓰게 된 룸메이트가 동성애자라면 나는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길 것이다.					
9. 나는 동성애 개념을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 동성애자는 자신과 다른 성의 상대방을 싫어한다(예: 게이는 여자를 싫어하고, 레즈비언은 남자를 싫어한다).					
11. 학생들이 학교에서 동성애 개념을 학습하게 되면, 동성애 성향을 떨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12. 나는 동성애적 행위를 상상하는 것이 아주 역겹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13.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 동성애자가 있다면, 나는 그 학생의 성적체성을 존중하고 격려해 줄 것이다.					
14. 동성애자는 이성애자 보다 아동학대, 성추행 및 성폭행, 관음증 같은 일탈적인 성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 크다.					
15. 내가 교원임용시험 최종 면접관이라면,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힌 응시생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할 것이다.					
16. 동성애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따로 격리되어야 한다.(예: 별도의 거주 구역, 고용 제한 등)					
17. 동성애 개념의 학습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학생들의 인권 의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문항 내용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중립적 이다	동의 한다	전적 으로 동의 한다
18. 동성의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손을 잡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불쾌감을 준다.					
19. 동성애 혐오증을 없애는 일은 오늘날 우리 학교 교육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20. 두 남성 또는 두 여성 간의 사랑은 두 이성 간의 사랑과는 상당히 다르다.					
21. 학교 안에도 동성애자를 위한 상담 창구와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22. 나는 동성애 해방운동이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23. 현직 사회과 교사들에게 동성애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직무 연수가 제공되어야 한다.					
24. 나에게 있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25. 교사 입장에서 볼 때, 학생들 간의 ‘동성 교제’ 행위는 ‘이성 교제’ 행위보다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일탈 행위이다.					
26. 나는 나를 고용한 사람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27. 동성애 개념의 학습은 고등학생의 정상적인 성 정체성 형성 과정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28. 동성애자는 강제적으로라도 정신과 또는 심리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29. 내가 맡은 학급에 배정된 전학생이 동성애자라고 하더라도, 학급 운영에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30. 우리 사회에서 점차 동성애를 인정해 준다면, 이는 결국 도덕적 타락을 가져올 것이다.					

문항 내용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중립적 이다	동의 한다	전적 으로 동의 한다
31. 나는 어떤 조직의 구성원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망설이지는 않을 것이다.					
32.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았어도, 나는 거리낌 없이 그 사람과 친구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33. 나는 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동성애 개념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					
34. 나는 공직 선거에 출마한 동성애자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다.					
35. 나는 학생들에게 동성애 차별 금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이나 사회 운동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할 의향이 있다.					
36. 만약 내가 부모라면, 내 아들이나 딸이 동성애자라 하더라도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관점 4) 고등학교 사회 교과의 핵심 목표는 권력 관계와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부정의(不正義)의 측면에서 과거와 현재의 우리 사회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사와 학생들은 경제적-지역적-성적(性的)-인종적-문화적 차별과 불평등의 사례들을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 교사들은 한 집단/사회가 어떻게 다른 집단/사회를 착취해 왔으며, 또 앞으로도 어떻게 그러한 착취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지를 조명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중립적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관점 5) 고등학교 사회 교과의 핵심 목표는 개인의 자긍심, 자존감, 자신감을 개별 학생들에게 불어넣어주는 것이다. 학생들은 개인과 집단이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 어떻게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사례들을 학습해야 한다. 교사는 협동 학습이나 개별화 교수 전략과 같이, 어떠한 학생도 낙오되지 않고 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교수-학습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중립적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그렇다면, 위의 다섯 가지 관점 가운데 선생님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사회 교과교육의 관점을 하나 고른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만 골라 ○표 해 주세요 !!!)

(관점1)

(관점2)

(관점3)

(관점4)

(관점5)

— 마지막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